

제사장들의 위임

I. 위임의 목적

- A. 제사장의 봉사를 수행하기 위함 (출 29:1, 44; 30:30)

- B. 교회를 건축하기 위함 (벧전 2:5, 9)

- C.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 무리와 거룩한 나라(땅 위의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시고, 창조물을 사탄의 통치에서 회복하시기 위함 (벧전 2:9; 계 5:9-10; 시 8:6; 롬 8:19-22)

- D. 우리는 더럽고, 자기자신 및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위임(성별)이 없이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다 (롬 2:5-11; 벧전 1:15-16)

- E.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위임”의 의미
 - 1. 카다쉬 (קִדְּשׁוּ) - 거룩하게 하다, 구별하다, 신성하게 여기다, 거룩하게 만듦 (출 29:1, 21, 27, 33, 36, 37; 레 8:10, 11, 12, 15, 30)
 - a. 제사장의 위임
 - i. 출 29:1 -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하라
 - ii. 출 29:20-21 - ...그와 그의 의복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 b. 이스라엘의 위임
 - i. 출 19:10 -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의 옷을 빨게 하라.”
 - c. 성막의 위임
 - i. 출 29:44 - 내가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하리라
 - d. 백성의 위임
 - i. 레 11:44 -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성별하고 거룩하라. 이는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2. 말레이 (מִלְאֵי) - 채우다, 부족함이 없게 하다, 성취하다, 완성하다 (출 29:22, 26, 27, 31, 34; 레 8:22, 28, 29, 31, 33)

a. 제사장들의 위임

- i. 출 29:9 - 너는 아론을 위임하라(그의 손을 채우라). 곧 제사장으로 일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는 것.
- ii. 출 29:35 -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같이 행하라. 너는 칠 일 동안 그들을 위임하라(그들의 손을 채우라). 즉 매일의 위임.
- iii. 민 3:3 - 이는 아론의 아들들, 곧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이라. 그들은 그들을 위임하여(그들의 손을 채워) 제사장으로 섬기게 했음.

b. 성막 건축과 제사장의 섬김을 위한 채움과 공급

- i. 출 31:2-3 - “보라,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불렀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였다.”
- ii. 출 40:35 - 구름이 회막 위에 머물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므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위임의 과정

II.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씻김 (출 29:4; 레 8:6)

A. 땅에서 묻은 때, 더러움, 오염, 땀을 제거함

- 1. 물,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이들의 부정함을 씻어 냄 (히 10:22; 요 15:3; 엡 5:26; 마 5:8)
 - a. 믿는 이들을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이것은 침례보다 훨씬 더 깊은 것.

B. 옛사람과 육체와 죄의 몸은 “씻음으로” 벗겨져야 한다. 세상적인 것을 처리한다. 이것은 죄보다 더 교묘하다 (레 10:3; 벧전 2:1-2)

III. 거룩한 의복을 입힘 (출 29:5-9; 레 8:7-9, 13)

A. 제사장의 의복은 제사장의 외적인 표현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 의복은 아름다움과 영광으로 충만해야 한다.

1. 이것은 아버지 앞에서 섬기시는 그리스도 자신이다.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만이 아버지께 받아들여진다.

B. 아론의 의복(대제사장의 의복)

1. 의복에는 속옷, 에봇 받침 겹옷, 에봇, 흉패, 에봇의 띠, 관, 거룩한 관이 포함된다 (출 29:5)
 - a.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 (계 19:8)
 - b. 여호와께 거룩함
 - c. 거룩한 행실과 경건 (벧후 3:11)
2. 기름 부음을 받음 (출 29:7; 레 8:12)
 - a. 기름 부음은 그 영이다 (행 10:38)
 - b. 그 영은 생명과 능력이다 (요 6:63; 롬 8:11)
 - c. 그리스도는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C. 아론의 아들들의 의복, 곧 제사장들의 의복

1. 속옷, 띠, 관
2.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섬기려면 우리는 합당하게 옷을 입어 우리의 타고난 몸과 육체를 가려야 한다. 육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추하고 가증하기 때문이다 (출 28:2; 롬 8:7-8; 합 1:12-13)

IV. 속죄제 (출 29:10-14; 레 8:14-17)

A. 성경에 있는 속죄제

1. 어린양이 아닌 수소를 바친다 (출 29:36)
2. 수소는 아론과 제사장을 대신한다 (출 29:19-20)
3. 제단이 거룩하게 된다 (레 8:15)
4. 제물의 가장 좋은 부분은 하나님께 드려진다 (출 29:12-14)
5. 나머지는 진영 밖에서 불태워진다.

B. 왜 속죄제인가? (롬 6:23; 뱀전 1:15-16)

C. 속죄제는 속죄와 구속을 위한 것이다.

1. 레 4:20 - 속죄
2. 히 9:12 - 구속

D. 그리스도는 단번에 영원히 드리진 우리의 참된 속죄제이시다 (히 10:12-14; 롬 6:10)

E. 제단은 십자가, 곧 죽음과 심판을 상징한다 (히 10:8-10)

F.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리신 것은 향기로운 냄새였다 (엡 5:2)

G. 오늘날 속죄제의 적용

1. 말씀은 죄를 드러낸다 (요일 1:1-4; 요 1:1-4; 히 4:12)
2.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요 15:3; 요 17:17)
3. 생각의 새롭게 됨 (마 9:16-17; 엡 5:26)
4. 우리는 죄를 이겨야 한다 (롬 5:12; 고전 15:56; 약 1:15; 요일 3:4, 8)
5.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요일 3:5-8)
6. 좋은 열매를 맺으라 (요 15:4-5)

V. 번제 (출 29:15-18; 레 8:18-21)

A. 두 숫양 중 첫 번째 숫양 (창 22:13)

B.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숫양의 머리에 손을 얹은 것은 그들이 이 희생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1. Tamim, 흠 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숫양은 죽임을 당하고, 그 피는 제단 주위에 뿌려진다 (말 1:6-8; 뱀전 1:19; 고전 1:8; 뱀후 3:14; 살전 3:13)
2. 자신을 대신할 대표자를 세움. 그 숫양 곧 자신이 된다 (뱀전 1:13; 빌 2:5)
3.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된다. 교회는 몸으로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하나이다. 예수를 바라봄. 온전하게 됨.

C. 숫양은 조각으로 잘리고, 내장은 씻겨 제단 위에 놓인다.

1. 죽기까지 순종함.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룸.
2. 우리가 생명이라고 부르는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온전하게 됨 (요 17:3; 마 16:25; 눅 17:33)

D. 숫양 전체가 향기로운 냄새로 불태워진다.

1. 더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참생명을 발견함 (고후 5:15)
2. 깨끗한 손과 순수한 마음. 제사장으로 섬기며 기도 안에서 주님의 임재 안으로 올라감. 순종과 헌신 (시 15; 시 24)
3. 일부만 드릴 수 없다. 위임은 완전한 헌신, 곧 산제사를 요구한다 (롬 12:1-2; 갈 2:20)
4. 아버지의 뜻을 행함 (마 17:5)
5. 아버지께 올라감 (계 8:4)
6. 너 자신을 온전히 드림 (딤후 4:15)
7. 새롭고 살아 있는 길 (히 10:20)

E. 불은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정화하여 제거한다. 거룩함과 의를 추구함. 다스리고 왕 노릇하기 위해서. (고전 3:13; 요 3:30; 빌 3:10)

F.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 곧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드리신 것처럼 자신을 제단 위에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마 26:7, 9, 12)

위임의 숫양(직분에 세움, 제자리에 둠, 채움)

VI. 위임식 제물의 피를 적용함 (출 29:19-21; 레 8:22-24)

A. 두 숫양 중 두 번째 숫양

B.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숫양의 머리에 손을 얹은 것은 그들이 이 희생 제물과 연결되었음을 의미한다.

C. 숫양은 죽임을 당하고, 그 피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볼,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발라진다.

1.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행하는 것, 우리가 가는 곳이 주님께 위임된다.
 - a.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함 (신 30:2-3, 6, 8; 요 10:27; 히 3:7)
 - b. 주님의 일을 수행함 (마 6:24; 마 24:45-51; 히 12:28)
 - i.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종들이다.
 - c. 그분이 보내시는 곳으로 감. 그분에게서 돌아서지 않음. 그 영께서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하심 (렘 7:23-24; 잠 12:15; 요 16:13; 약 4:13-17)
2. “채움”으로서 그분은 우리를 부르신 모든 봉사과 일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롬 8:11; 고후 3:5; 고후 9:8; 빌 4:13, 19)

D. 제단의 피와 기름 부음의 기름을 아론과 그의 의복,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의복에 뿌려 그들과 그들의 의복을 거룩하게 한다.

1. 성령으로 채워지고 거룩하게 됨

VII. 요제와 거제, 곧 화목제 (출 29:22-28; 레 8:25-29)

- A. 요제와 거제는 하나다. 제물은 불태워지지 않고 앞뒤로 흔들리며 들어 올려지고, 제사장들에게 음식으로 주어진다.
1. 부활과 승천을 의미한다.
 2.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부활과 승천 안에서 살아야 한다.
- B. 숫양의 기름, 콩팥, 오른쪽 넓적다리, 빵 한 덩어리, 기름으로 만든 과자 하나, 전병 하나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 의해 여호와 앞에 흔들려 드려진다.
- C. 위임 제물 - 흔들 후에는 이것들이 제단 위에서 향기로운 냄새로 불태워진다 (출 29:25; 레 8:28)
1.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 보관하지 않고 주님께 드려진다.
- D. 숫양의 가슴은 흔들어 드려지고, 숫양의 넓적다리는 들어 올려 거제로 드려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는다 (출 29:32; 레 8:29)
1. 위임은 안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안과 밖 모두이다.
 2.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위임을 유지하도록 힘과 그분의 사랑을 공급하신다.

VIII. 칠 주야 (출 29:30, 32, 35, 36; 레 8:33-36)

A. 칠 일 - 완전함

B. 중간에 휴식이없고, 성막을떠날 수 없으며, 계속 그분의임재 안에 있고 그분을 섬긴다.

C. 이 칠 일 동안 속죄제, 곧 수소가 매일 드러져야 한다.

1. 우리는 죄에 대해 한 번만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D. 우리는 값을 치르고 사신 바 되었다 (고전 6:20)

E. 우리는 그분을 따르기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한다(눅 9:57-62; 눅 12:35-48; 유 20-21)

IX. 성막 안에서의 제사장의 섬김 / 그리스도 안에서의 매일의 생활

A. 성막의 세 부분 - 바깥뜰, 성소, 곧 거룩한 곳과 지성소

1. 성막은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단체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모두 나타낸다.
2. 사람은 세 부분, 곧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졌다 (살전 5:23)

B. 영 - 우리의 가장 깊은 속부분은 성막의 지성소에 해당한다.

1. 왕국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요 3:5-7; 행 2:38)
2. 하나님은 지성소에 거하신다. 증거궤와 속죄소가 있으며, 그 안에는 만나와 싹 난 지팡이와 계명의 돌판이 있다 (요 6:48-58)

C. 혼 - 생각, 감정, 의지로 이루어지며 성막의 성소에 해당한다.

1.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혼의 변화이다 (막 12:30)
2. 우리 믿음의 결국은 혼의 변화이다 (벧전 1:9)
3. 육체와 영 사이에는 전쟁이 있다 (갈 5:16-17)

4. 그 영은 우리의 혼을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다 (딤후 1:7)

5. 성소 안에서 제사장들의 봉사

a. 금등잔대

i. 개인적으로 그리고 단체적으로 -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마 5:14-16)

ii. 위대한 하늘의 대제사장께서 금등잔대들 가운데 거니신다 (계 1:12-13)

b. 금향단

i. 개인적으로 - 기도 안에서 주님과 시간을 보냄 (마 6:6; 마 14:38; 약 5:17)

ii. 단체적으로 - 그분의 목적에 따라 기도함 (계 5:8; 계 8:3-4; 마 6:10)

c. 진설병이 있는 금상

i. 개인적으로 그리고 단체적으로 - 그분을 사랑한다면 성도들을 돌보고 서로를 먹이라 (요 21:15-17)

ii. 말씀을 먹음 (마 4:4; 레 24:5-9)

D. 몸 - 우리의 외적인 부분은 성막의 바깥뜰에 해당한다.

1. 우리도 새 몸을 받을 것이다 (빌 3:21)

E. 우리의 온 존재가 변화될 것이다.

1. 그 영 안에서 행한 결과는 그 영의 열매이다 (갈 5:22)

2. 새 하늘의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성전도 없고, 해와 달과 빛도 없다. 하나님 자신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다 (계 21:22-27)